



## 첨단IT산업으로 도약

2006 서울국제문구·완구전시회

지난달 10월 29일 막을 내린 '2006 서울국제문구·완구전시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첨단 산업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다보면 문구·완구 산업도 이제 신기술을 이용한 첨단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넘쳐난 '2006 서울국제문구·완구전시회'를 다녀왔다.

지난달 29일(일), '2006 서울국제문구·완구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경제신문, 한국관측물제조협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사)전국문구인연합회가 후원했으며, 문구, 완구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 수출의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국내외 100여 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신소재·기술 개발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2006 서울국제문구·완구전시회'는 '문구'와 '완구'라는 공통적이면서 차별화되는 점을 잘 나타낸 전시회였다.

이를 위해 부스배치에서부터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관람객들의 동선에 따라 주로 오른쪽에는 문구류와 관련된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자리를 했고, 왼쪽에는 완구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배치됐다. 이번 전시회는 신소재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상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주)(대표 임동



- 1 '2006 서울국제문구, 완구전시회'는 20여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 2 2006 서울국제문구, 완구전시회에서 '양지사'는 다양한 다이어리 제품들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 3 '한국제지'는 친환경 복사용지 하이퍼CC로 크게 주목받았다
- 4 압정이나 핀이 없이도 물건을 부착할 수 있는 인쇄코팅기술을 선보인 '아름다운(주)'
- 5 'G&F엔터프라이즈'에서 최신로봇기술을 이용해 자신있게 선보인 로봇애완동물 'ROBOREPTILE'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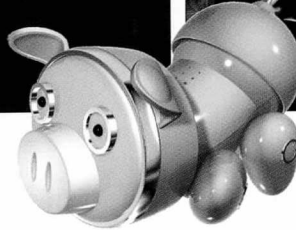
구, [www.beautifultex.com](http://www.beautifultex.com))에서 내놓은 '흡착력 스티커'는 당연 돋보였다. '흡착력 스티커'는 최신인쇄코팅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자석이나, 핀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부착물이든지 붙여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노신소재기술로, 전시회에는 프린트용지, 사진용지, 메모지, 달력, 벽지, 게시판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했다. 아름다운(주)는 흡착코팅, 난슬립코팅, 기능성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일반 인쇄용품 및 생활용품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전시회에서는 최근 로봇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듯이, 첨단로봇을 이용한 완구도 대다수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G&F엔터프라이즈(대표 정택웅 [www.wowweeonline.co.kr](http://www.wowweeonline.co.kr))에서 내놓은 'ROBOREP TILE'은 최신로봇기술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었다. '공룡로봇'의 경우에는 혼자 달리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애완동물과 같이 쓰다듬어주면 기분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살짝 깨물고 장난을 치는 등 실제 애완동물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로봇이었다.

C&F엔터프라이즈는 최신 로봇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도 내놓고 있는데, 유아용품은 물론 그 밖에 귀여운 모습의 '힙팝펫'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1 '손오공' 부스 앞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연극공연이 펼쳐졌다 2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G&F엔터프라이즈' 3 전시회장을 찾은 아이들은 각종 행사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친환경’은 이제 모든 산업의 화두

전시회 또 하나의 트렌드는 ‘친환경’이었다. 이제 ‘친환경’은 모든 산업의 공통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구와 완구 산업에서 필수적인 종이를 생산하는 ‘한국제지’의 전시부스가 눈에 띄었다.

한국제지는 이번 전시에 새로 개발한 복사용지 ‘하이퍼CC’를 자신 있게 소개했다. 문구의 경우 종이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은데,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은 특히 더한데, 한국제지의 ‘하이퍼CC’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표백과정에서 염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환경오염이 없고, 또한 사용자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하이퍼CC’는 타사제품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섬유질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고른 지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뛰어난 인쇄품질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제지’는 이번 전시회에서 외국 바이어들에게 특히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신나는 이벤트들을 가득한 동화 세상

‘2006 서울국제 완구, 문구전시회’는 다채로운 이벤트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랑의 카드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들에게 무료로 엽서를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신제품경진대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문구들을 소개했다. 또한 ‘몽당연필, 다 쓴 공책 바꿔드려요’ 행사를 통해서 짝아진 연필과 다 쓴 공책을 가져오면,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인형들’과 ‘키다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어울려 하나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도 들게 했다.

완구부스에서는 각업체별로 준비된 행사가 진행됐는데, 완구제작전문업체인 손오공에서는 매시간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공연을 펼쳐 지나가던 참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완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부모들에게 안전에 대한 상식과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체험장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